

“‘현대판 춘향’은 어떻게 담아봤죠”

보성 출신 정범중 소설가
장편소설 ‘춘향의 친구’ 펴내
뜨겁게 살아가고 자기 길 개척
현대에도 유효하다 말하고 싶어



정범중 소설가

“춘향을 새롭게 해석해 보고 싶었습니다. 고전적인 의미의 춘향에서 벗어나 현대에 의미를 지닌 춘향을 찾는 것이죠. 이런 작업을 기존의 소설에서 쓰는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보성 출신 정범중 소설가가 장편소설 ‘춘향의 친구’ (문학들)를 들고 독자 곁으로 다가왔다. 숨가쁘게 전개됐던 대선기간인 늦봄과 초여름 사이에 발간됐던 터라 시기상 다소 아쉬운 면이 있었다. 그러나 작가에게 소설은 소설이고 정치는 정치일 뿐이다.

이번 작품을 발간하게 된 계기에 대해 정 작가는 “현대판 ‘춘향전’을 무대에 올리려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과 호기심이 창작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동안 정 작가는 희곡과 소설을 오가며 꾸준히 창작활동을 해왔다. 글을 쓰는 틈틈이 사는 곳을 벗어나 가끔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그는 “다른 세상을 보려는 게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곳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렇 만도 했다. 아니 작가는 그럴 필요성이 있겠다 싶다. 나 외에 다른 인물, 다른 고장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정작 나와 관련해서는 객관화하기가 쉽지 않다. 다른 곳에서 ‘나’와 ‘이번’을 바라보면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면들이 보이고 깨달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소설을 관통하는 주제에 대해 묻자 그는 “춘향은 뜨겁게 사랑하고 굳세게 자기 길을 걸어간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작품에 제시하면서 이는 현대에도 유효한 것임을 말하고 싶었다”며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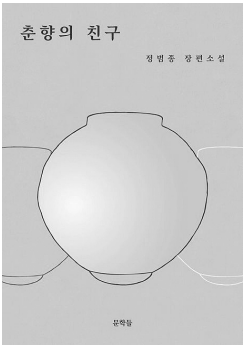
편으로 춘향의 친구들, 즉 지금 사랑하고 자기 길을 걷는 당대의 젊은이들의 사는 모습을 담으려 했다”고 전했다.

신초희와 김윤도, 민규는 ‘춘향전’을 연극으로 올리기 위해 의기투합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신초희는 생계를 위해 한복 디자이너인 이모 옆에서 모델 일을 하고, 시간이 날 때면 베이비시터 알바를 한다. 문득문득 ‘연극 배우로는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 감에 영화판을 기웃거리기도 한다.

부모의 기대를 받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연출가 김윤도는 작품을 무대에 올리길 위한 자금 문제로 고민을 한다. 아버지로부터 강남의 아파트를 물려받기 위해 위장 결혼까지 계획하고 있다. 대본을 맡은 민규는 ‘자기 표현’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부딪힌다.

작가가 이번 작품에서 가장 관심을 뒀던 부분은 ‘판소리 춘향가’다. “판소리를 조선시대에도 두지 않고 지금의 시간으로 끌어왔다”며 “소설에 나오는 판소리 사설은 대부분이 옛것이 아닌 지금의 사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젊은이들의 언어로 된, 당대의 사람들이 공감할 사설을 위해 여러 시도와 노력을



기울였다”며 “특히 판소리 분위기에 젖으려고 ‘춘향가’ 완장을 여러 번 들었다”고 부연했다.

정 작가는 희곡과 소설의 경계를 오가며 다양한 작품을 쓴다. “이 이야기와 마주치면 이게 어떤 장르에 맞는지 생 각하는 게 일상이 됐

다”고 했다.

“어린이에게 들려주기에 좋은 이야기면 동화로 씁니다. 무대에 올려서 보여주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 희곡으로 쓰구요. 여러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을 때는 장편소설로 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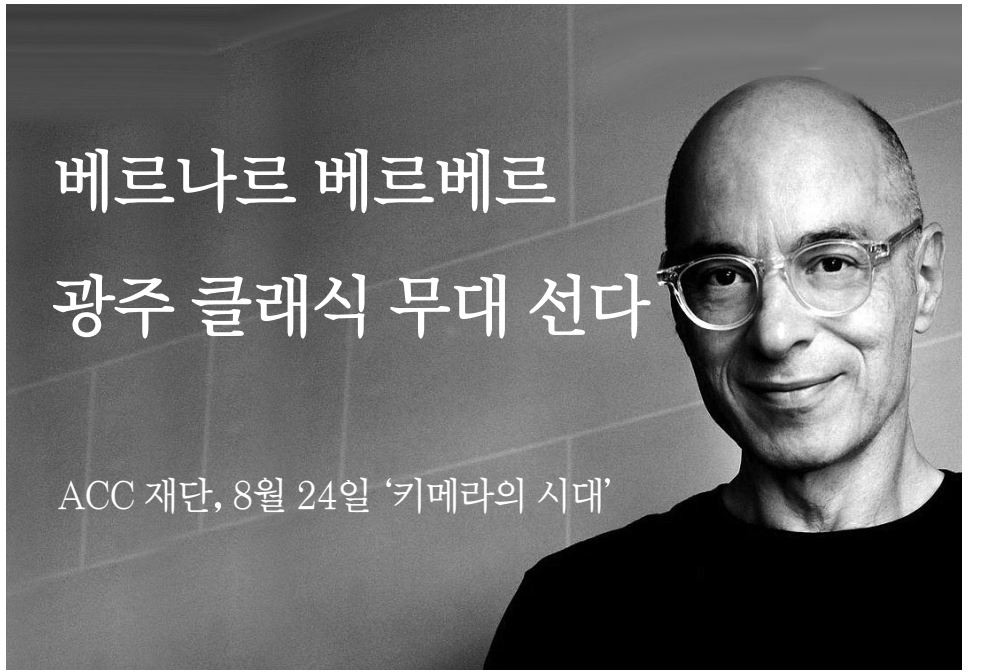
한 장르도 제대로 집중하기 힘든데 그는 세 장르를 오가며 창작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1986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희곡 ‘새연’이 선정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래 제주4·평화문학상(소설), 문학동네 어린이문학상, 광주시립극단 희곡상 등을 수상하며 창작의 영역을 넓혀왔다.

갈수록 문학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 “언어는 우리 삶의 바탕이며 언어를 지켜야 한다는 소명을 지니고 있다”는 말에서 심지 굳은 작가의 면모가 엿보인다. 정 작가는 “문학을 하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다른 분야의 분들도 다들 어려워 한다”며 “문학만이 어렵다고 여기지는 않고 힘들든 데까지 노력을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그는 소설, 동화, 희곡을 꾸준히 쓸 예정이다. “가능한 한 이전보다 더 나은 작품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계획입니다. 바람이라면 내 주위에서 더 많은 동식물, 다양한 생명체와 만나고 친구가 되는 것이지요.”

“한편 정 작가는 지금까지 ‘칼과 학’, ‘마스크 요정과 꼬마꽃별’, ‘봄날의 새연’, ‘매사냥꾼’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사진)가 광주 무대에 선다.

날카로운 통찰과 철학적 상상력으로 사랑받아온 프랑스 작가가 광주 관객들에게 문학과 클래식이 만나는 특별한 자리를 선물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8월 24일 오후 3시 ACC 예술극장 극장 1에서 ACC 초이스 공연 ‘키메라의 시대’를 연다. 이번 무대는 베르베르가 문학을 넘어 클래식과 손잡고 선보이는 융합 공연으로, 광주에서 국내 첫 무대를 펼친다.

공연은 오는 8월 국내 출간을 앞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키메라의 땅’을 기반으로 구성되며, 작가 본인이 대본을 집필했을 뿐 아니라 해설자로서 직접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문장 너머에 담긴 작가의 의도, 인물의 심리, 세계관의 뿌리를 그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듣는 경험은 관객에게 깊은 몰입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작품은 제3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래를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 진화생물학자 알리스 카머

리는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를 결합해 명숙·하늘·바다에서 생존 가능한 세 가지 새로운 존재 ‘키메라’를 창조한다. 이들은 기존 인류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새로운 생명체가 등장한 세계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연은 이 같은 질문을 음악과 이야기로 풀어낸다.

무대에는 세계적인 실내악단 세종솔로이스츠와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 플루티스트 최나경이 함께한다. 이들은 고유한 감성과 연주력으로 베르베르의 상상 세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오채환 문화예술사업담당장은 “이번 공연은 문학과 클래식 음악이 만나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베르베르를 사랑하는 독자, 관객들이 그의 세계관에 더욱 깊이 몰입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ACC 재단 누리집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시립도서관 ‘찾아가는 설명회’

27일 무등도서관...지역자료 수집기관 등 대상 납본제도 설명

광주시립도서관은 ‘지역자료 수집과 도서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2025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연다. 오는 27일 오후 2시 무등도서관 1층 대회의실.

납본제도는 새로 발행 제작된 간행물 등을 국립중앙도서관 및 광역대표도서관 등에 견본으로 삼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시립도서관이 공동 주최하며, 광주·전남·전북지역의 지역자료 수집기관, 공공기관, 연구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설명회는 지역자료와 향토자료의 수집 중요성을 공유하고, 납본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지역자료 납본제도 안내(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과), 지역문화 아카이브, 도

서관(이호선 한성대학교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교수), 다다원선 : 사서를 위한 나만의 읽기 스타일 찾기(서미경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등이다.

시립도서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과 연구원 등 다양한 지역자료 생산 주체가 납본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지역문화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경희 시립도서관장은 “광역대표도서관이 수집하는 지역자료는 지역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납본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 무형유산 가야금병창 명품 무대

전통문화관 28일 토요 상설공연...보유자 이영애 선생·전수자 공연

광주시 무형유산 가야금병창의 맥의 계보와 전통성을 엿볼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 전통문화관은 오는 28일(오후 3시) 토요 상설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가야금병창 보유자 이영애(사진) 선생과 전수자들이 함께 전통의 깊이와 미를 전한다. 이날 무대는 이영애 보유자의 ‘단가’(녹음방

초)와 수궁가 중 ‘타살을 탕탕’ 대목으로 시작한다. 이어 ‘화사자 불러들이는데’, ‘여봐라 주부야’, ‘고고천변’, ‘상좌 다름 허는디 가자 어서가’ 등이 연주된다. 공연은 이영애 보유자의 전수 장학생을 비롯해

전수자, 제자들이 함께 꾸미는 무대로 펼쳐진다. 웅복합 앙상블 ‘부나비즈’의 김민철 대표가 고수로 참여한다. 이 보유자는 원광대 국악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제25회 전주대사습놀이 가야금병창 부문 장원, 제12회 우륵가야금병창경연대회 대통령상을 받았다. 현재 (사)낙안읍성가야금병창보존회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광주 가야금병창의 계보에는 조선 말 가야금산조 창시자 김창조에게 산조와 병창을 전수받은 오수관 병창이 있다. 그의 장남 오태석은 송만갑 국창에게 판소리를, 김창조에게 산조와 병창을 배워 당대 최고 가야금병창 예인이라는 평을 받는다.



전통문화팀 송현민은 “이번 토요 상설공연은 가야금병창의 계보와 전통성을 가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다”며 “가야금 병창의 시원한 무대가 무더위와 장마를 씻어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다음 프

로그램은 7월 5일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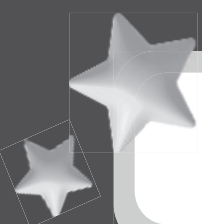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일보 73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